

뉴스홈 | 최신기사

## [월드&amp;포토]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모이는 마러시아 군대

송고시간 | 2022-02-07 15:40



이원진 기자

기자 페이지



탱크 동원해 연합 훈련하는 러시아 벨라루스군

(브레스트스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브레스트스키 사격 훈련장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해 대전차 미사일, 야포 등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2022.2.4 sungo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원진 기자 =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 CNN방송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업 위성 업체 맥사(Maxar)가 찍은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러시아가 세 군데 벨라루스 지역에 무장과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세 곳은 모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과 50km 이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4일 위성사진

[AFP/Maxar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010회  
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불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이런 움직임은 10일부터 진행될 러시아-벨라루스군 간 연합훈련이 명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성 사진을 보면, 훈련 장소인 벨라루스 남부 루니네츠 내 비행장에는 대공 방어시스템인 S-400과 전투기 Su-25 10여대 등이 배치됐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루니네츠에 이런 무장을 배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고공 침투 훈련하는 러시아-벨라루스 낙하산 부대원들

(브레스트 로이터/BeITA=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연합훈련에 참여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낙하산 부대원들이 고공 침투 훈련을 벌이고 있다. [제3자 제공. 재판매 DB 금지]. 2022.2.4 sungok@yna.co.kr

나머지 두 지역은 이 훈련 장소에서 수백km 떨어진 곳입니다.

루니네츠에서 동쪽으로 2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남동부 레치차 지역에 탱크, 곡사포, 기동 전투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레치차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과 25km 떨어진 옐스크 지역에도 단거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새로 배치됐습니다.



#### 벨라루스 영공 비행하는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벨라루스 영공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Tu-22M3 장거리 전략 폭격기 2대가 5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영공에서 벨라루스 공군기와 합동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벨라루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2.6 jsmoon@yna.co.kr



We Do Technology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 뉴스

尹당선인 안위원장 만찬 회동... "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 마스크는 '유지'



러시아군은 지난 5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 Tu-22M3 2대를 벨라루스 영공에 보내 4시간에 걸쳐 초계비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역시 동맹국 벨라루스 공군과 연계한 러시아의 군사 훈련의 일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인접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침공 경로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 '우크라 사태' 속 훈련하는 러시아군 저격수

(니즈니 노브고로드 AP=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저격수가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 제공, 2022.2.3 knhknh@yna.co.kr]

미국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에 약속했던 추가 파견 병력을 동유럽 현지로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미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총 3천명의 병력을 추가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군 8천500명에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것과는 별개의 추가 파병입니다.

이렇게 동유럽으로 추가 배치되는 병력은 일단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대응군을 가동할 때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 '우크라 사태' 속 동유럽에 파견되는 미군

(포트브래그 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 있는 군용 비행장에서 동유럽에 파견되는 미군이 수송기에 오르고 있다. 2022.2.4 sungok@yna.co.kr

6일 수십명의 미군 병력과 무기가 C-1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남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수완박에 청문장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2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 "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1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전날 미 육군 82공수사단 여단전투단 일부 인원이 도착한 데 이어 두 번째 미 병력이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총 1천700명가량의 미군 병력이 이 곳에 배치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 육군 최정에 부대로 꼽히는 82공수사단입니다.



#### '우크라 사태' 속 미군 병력 신고 폴란드 도착한 수송기

(제슈프-아시온카 AP=연합뉴스)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병력을 태운 수송기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남동부 제슈프-아시온카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2.2.7 leekm@yna.co.kr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인근에 파견 병력을 늘리기만 할까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군사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하반기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실은 수송기를 약 15차례 보냈 습니다.

이달 4일에는 캐나다가 개인보호장구, 군장, 첩보 장비, 쌍안경, 레이저 등 비상상 군용 장비와 훈련 교관 1팀을 우크라 이나로 보냈습니다.



#### '미국 지원' 로켓 발사기 조작법 익히는 우크라이나군

(리비우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서부 리비우 인근 아보리프 사격 훈련장에서 미국이 제공한 전지 파괴용 견착식 로켓 발사기 (SMAW-D)의 조작법을 익히고 있다. 2022.2.4 sungok@yna.co.kr

유튜브로 보기

#### 🔗 관련기사

미러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 속속 집결...외교전도 긴박  
'백척간두' 우크라이나, 전쟁 저지에 '필사작'  
"러, 우크라이나 접경 벨라루스 3곳에 군병력 증파"  
루카셴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몰아넣어"  
러시아, 벨라루스에 핵 전폭기 또 파견...4시간 초계비행  
푸틴-마크롱, 일주일 새 세번째 통화..."우크라 주변 정세 논의"  
미국, '올림픽 참가선수 탄압' 벨라루스인들에 입국 제재  
유럽 문제는 유럽이...우크라 위기 중재에 비뻐진 발걸음  
우크라 국방 "러시아 접경 지역 상황 악화 가능성 작아"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 벨라루스에 병력·무기 배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7 15:40 송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다스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환경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세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